

결론

복합세계정치론의 이해

전략 · 원리 · 질서

김상배

제1절 머리말

21세기는 그야말로 복합세계정치(Complex World Politics)의 시대다. 세계정치(World Politics)의 문제는 군사, 경제, 외교 등의 어느 한두 영역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기술, 정보, 지식, 문화, 커뮤니케이션, 환경, 에너지, 자원, 여성, 인권 등의 여러 영역에 복합적으로 걸쳐 있다.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행위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비국가행위자들의 복합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들 행위자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권력게임의 양상도 예전처럼 단순히 강제하고 명령하는 모양새만이 아니라 보상하고 설득하는 방식이 섞여서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프라인 공간뿐만 아니라 유무선 인터넷의 디지털 네트워크가 창출한 온라인 공간도 복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요컨대 오늘날 우리는 문제영역의 복합, 행위자의 복합, 권력게임의 복합, 활용공간의 복합 등으로 개념화되는 복합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복합세계정치의 확산에 대응하려는 한국 외교의 노력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0년 말에 이르러 외교통상부에서 화두로 제시한 소위 ‘총력·복합외교’(이하 복합외교)는 이러한 노력의 단초를 보여주는 사례다. 예를 들어 모든 정부 부처 그리고 기업과 시민사회를 비롯한 민간 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총력외교, 정치, 군사, 경제에서 나아가 자원, 에너지, 기후 변화, 과학기술 등을 아우르는 ‘복합외교’,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과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해 주요국 정부와 민간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디지털 네트워크 외교, 군사력과 경제력 등 하드파워뿐만 아니라 문화, 가치, 국가 이미지 등 소프트파워를 중시하는 중견국 외교 등이 한국 외교가 추구할 전략과제로 표방된 바 있다. 이러한 행보는 한국 외교가 과거 냉전시대에 채택했던 단순외교의 발상에서 벗어나서 좀 더 복합적인 발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복합세계정치의 개념화와 복합외교의 문제제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가장 일반적인 비판은 복합세계정치와 복합외교의 핵심을 이루는 ‘복합’의 개념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서로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예전과 같이 국가행위자들이 중심이 되는 단순국제정치와 이에 대응하는 단순외교의 발상을 넘어서야 한다는 문제제기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그러나 ‘복합’의 개념 안에 다양한 행위자들이 함께 참여해, 여러 가지 방식들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막연히 ‘복합’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차원을 넘어서 외교전략의 쟁점이나 추진주체 그리고 동원하는 권력자원이나 활용공간 등의 변수가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의 비율로 복합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21세기 세계정치의 영역과 주체와 수단이 복합되고 있으니 이에 대응하는 전략도 복합적이어야 한다는 포괄적인 논리를 넘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개념의 제시가 필요하다.

그림 11-1 복합네트워크의 발상

구분	단순 메커니즘	복합 메커니즘
노드 전략의 발상	<1-영역>	<2-영역>
네트워크구조의 발상	<3-영역>	<4-영역>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는 현재 거론되는 복합세계정치에 대한 논의나 복합외교의 구상이 다분히 일국의 외교전략을 모색하는 노드^{node}, 즉 행위자 차원의 발상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자 기반의 복합 발상은, <그림 11-1>에서 그려본 바와 같이, 강대국 외교에 편승하는, 과거 개도국의 단순 외교전략(<1-영역>)을 넘어서 중견국이 추구할 복합외교전략의 필요성(<2-영역>)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행위자 차원에서 이것저것을 엮는 전략(즉 네트워크)의 구사를 논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행위자 차원의 발상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전략이 실제로 투영되는 구조로서의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입체적인 고려가 부족하다는 데서 발견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자 차원의 발상을 고수하다 보면 행위자의 전략과 구조의 환경이 상호작용하면서 전개되는 세계정치와 외교전략의 동태적 과정과 입체적 구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이전에도 구조로서의 네트워크에 대한 발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세계체제의 구조를 탐구했던 세계체제론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Wallerstein, 1980). 그러나 세계체제론에서 논하는 구조는 중심과 주변 그리고 반주변으로 나누어지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네트워크의 개념(<3-영역>)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다자외교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다자외교의 경우도 역시 다소 평면적인 구도에서 국가행위자라는 노드

들 간의 링크를 늘려가는 단순 네트워크의 발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 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복합적인 구조로서 네트워크의 발상이다(〈4영역〉). 다시 말해 복합세계정치와 복합외교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러한 복합적인 네트워크 구조가 행위자들에게 어떠한 활동의 조건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구조적 조건하에서 행위자들은 어떠한 전략을 펼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복합세계정치의 문제제기는 해외 학계에서도 유사한 시도를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책에 담긴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국내 국제정치학계에서 진행된 고민의 흔적들을 담고 있다. 실제로 ‘복합’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흔적만 찾아가도 국내 학계에서 전개된 복합세계정치론의 기원은 지금으로부터 어언 2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다(하영선 편, 1993). 근대 국제정치가 변환되는 와중에 출현하는 탈근대 지구정치의 복합적 동학을 행위자와 문제영역 그리고 권력게임의 복합이라는 시각에서 파악하려는 의도에서 복합세계정치론은 시작되었다. 10여 년의 숙성기를 거치고 난 2000년대 중반 복합세계정치론은 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고 전개되었다.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테마가 그것이었다(하영선·김상배 편, 2006). 그 이후에도 복합세계정치론은 좀 더 역사적 맥락에 투영됨과 동시에 좀 더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분석적인 이론의 색채를 가미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하영선·김상배 편, 2010; 하영선, 2011; 전제성, 2011; 김상배 편, 2011; 하영선·남궁곤 편, 2012).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 책에서 다룬 복합세계정치에 대한 논의들은 이론적·경험적 시각에서 복합 개념의 내용을 더 면밀히 탐구하려는 시도다. 사실 개념어로서의 복합(複合, complexity)은 그리 쉬운 말은 아니다. 쉽게 보면 단순(單純, simplicity)의 반대말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일상어에서 흔히 사용되는 복잡(複雜, complicatedness)과 헛갈릴 수 있다. 복합에서 복(複)은 옷(衤=

衣)을 겹쳐서^복 입는 일 또는 사물이 겹쳐지는 일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렇게 겹쳐지는 일이 단순히 뒤섞이는 잡^雜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는 합^合이 된다는 것이 복합 개념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 복^複이 잡^雜이 아니라 합^合이 되는 고유한 공식, 즉 일종의 ‘무질서 속의 질서’가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복^複이 합^合이 되는 고유한 공식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 장에서는 복합에 담겨 있는 고유한 공식의 내용을 밝혀내기 위해서 최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에서 주목받고 있는 네트워크 이론을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원용했다(하영선·김상배 편, 2010; 김상배 편, 2011). 복합의 개념에다가 네트워크의 개념을 더해 보는 이유는,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행위자들의 복합적인 행동(즉 네트워킹의 과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구조 그리고 더 나아가 행위자와 구조가 상호 구성되는 원리를 복합적으로 잡아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복합과 네트워크의 개념적 만남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네트워크라는 관계구조의 복합적 성격을 이해하는 단초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네트워크의 관계구조하에서 추진되는 행위자들의 네트워킹 전략의 복합적 성격을 더 분석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탐구를 통해서 복합세계정치와 복합외교란 무엇인지에 대한 더 정교한 논의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이 이 장의 인식이다. 이 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2절에서는 이 장에서 원용하는 네트워크의 개념과 이론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합과 복합세계정치를 이해하는 개념적 플랫폼을 제시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3절과 제4절, 제5절에서는 각각 새로운 외교전략의 모색, 새로운 구성원리의 부상, 새로운 세계질서의 창발이라는 차원에서 파악된 복합세계정치의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경험적 사례들을 제시했다. 끝으로 맺음말에서는 이 장의 논의를 종합·요약하고 복합세계정치

의 연구가 풀어야 할 향후과제를 지적했다.

제2절 네트워크 이론의 원용

영어의 ‘network’에서 기원한 네트워크는 실이나 철사 등을 그물^{net} 모양으로 엮어놓은 것을 통칭하는 용어다. 우리말로로는 ‘그물’ 또는 ‘망^網’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지만 네트워크라는 외래어가 널리 통용되고 있다. 네트워크의 가장 기초적인 정의는 “상호 연결되어 있는 노드^{node}들의 집합”이다 (Castells, 2004). 노드들을 상호 연결하는 것을 링크^{link}라 하고, 이러한 링크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노드가 형성된다. 노드와 링크의 내용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사실 이렇게 보면 인간만사 모든 것이 네트워크가 아닌 것이 없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맥, 학맥, 혈맥에서부터 교통망, 방송망, 통신망이나 상품의 판매망과 종교의 포교망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네트워크의 형태를 띠고 움직인다. 국제정치 영역에서 관찰되는 정치군사 동맹이나 국제무역 또는 국제기구의 멤버십, 다양한 의미에서 이해된 사람과 문화의 교류 등도 모두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빌어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 장이 탐구하는 것은 이렇게 노드들의 연결체라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파악된 단순 네트워크는 아니다. 이 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특수한 의미에서 파악된, 그렇기 때문에 ‘복합’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이해하려는 네트워크, 즉 ‘복합네트워크’의 부상이다. 복합네트워크는 단순히 노드와 노드가 링크로 연결된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렇게 연결된 노드와 링크의 집합이 만들어내는 네트워크의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이 종전의 일반적인 의미의 네트워크와는 다르다. 다시 말해 복합네트워크란,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복^複’을 구성하는 고유한 공식으로서의 ‘합

속'을 찾아볼 수 있는 특정한 종류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보통명사로서의 '네트워크^{network}'라기보다는 고유명사로서의 '네트워크^{Network}'라고나 할까? 사실 네트워크라는 현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복합네트워크의 특수성 때문이다.

복합네트워크의 개념이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은, 일차적으로 복합이나 네트워크라는 말이 태생적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상용어라는 데 그 이유가 없지 않다. 따라서 복합과 네트워크 또는 복합네트워크를 개념어로 사용할 경우, 이들은 논자에 따라서 매우 포괄적으로 사용되기 쉽고, 따라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너무나도 많다. 실제로 이 장에서 복합 개념을 명료화하기 위해서 원용한 네트워크도 그 개념적 외연과 내포가 명확하지 않은 대표적인 용어다. 간혹 모든 것을 다 네트워크로 설명하려는 '개념적 확장-conceptual stretching'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로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복합 개념과의 관련 속에서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이는 복합세계정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논제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최근 학계에서 주목받는 네트워크 이론의 논의를 원용해 복합과 네트워크의 개념을 다듬어서 사용하고자 한다. 복합이나 네트워크나 모두 모호한 개념이지만, 복합의 개념에 네트워크의 개념을 더하면 양자가 모두 개념적으로 명료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 장에서는 복합의 개념보다는 학계에서 상대적으로 풍부한 논의가 진행되어온 네트워크의 개념과 이론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렇지만 현재 사회학이나 물리학 그리고 역사학(주로 과학사) 등에서 논의되는 네트워크 이론은 그 인식론이나 방법론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너무 다양하다는 단점도 없지 않다. 네트워크 개념과 이론이 다양할 뿐 아니라 이들 연구들이 주안점으로 삼고 있는 네트워크의 층위도 조금씩 다르다. 분석적 층위를 어디에 고정시키느

냐에 따라서 네트워크라는 존재는 유동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Thompson, 2003; 김상배 편, 2011).

예를 들어 네트워크는 노드들이 연결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특정한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을 갖는 노드와 링크들의 조합, 즉 ‘구조’가 생성된다. 그런데 이렇게 생성된 네트워크에서 노드와 구조를 구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네트워크는 노드와 구조가 상호작용하면서 자기조직화의 메커니즘을 밟아가는 일종의 ‘메타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행위자’이자 ‘과정’인 동시에 ‘구조’로 이해된 네트워크의 개념은 복합의 개념과 복합세계정치의 내용을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적 플랫폼이 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네트워크의 개념을 과정, 행위자, 구조의 세 가지 시각에서 접근했다.

첫째, 네트워크를 ‘과정’으로 이해하는 시각이다. 사실 네트워크는 그 실체가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네트워크는 부단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노드와 노드들이 연결되어 링크를 만들어가는 동태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된 네트워크란 노드의 집합이 보여주는 ‘행위의 패턴’인 동시에 노드의 집합에 대한 일종의 ‘관리양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된 노드들 간의 상호작용의 과정은 네트워크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네트워킹networking’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이러한 과정으로서 네트워크의 개념을 탐구하는 논의는 과학기술 사회학 분야에서 주로 원용되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에서 발견된다. ANT는 인간 및 비인간(non-human) 행위자들이 서로 이종(異種)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는 과정, 즉 ANT의 용어로는 ‘번역(translation)’의 과정을 탐구한다. ANT에서 행위자란 노드와 같이 개체론의 시각에서 파악되는 행위자는 아니고, 오히려 행위자와 구조가 상호작용하면서 구성하는, 행위자인 동시에 네트워크인 존재로서 그려진다(Latour, 1987; 1993; 2005; Callon, 1986; Law and Hassard, 1999; Harman, 2009; 홍성욱, 2010).

이렇게 행위자와 네트워크를 이해하면, 복합이란 행위자가 자신의 주위에 단순하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쳐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복합네트워크(즉 네트워킹)라 함은 어느 행위자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주위의 인간행위자뿐만 아니라 비인간행위자라는 변수들을 끌어 모아서 네트워킹을 추구해가는 일종의 ‘집합의 전략’이다. 사실 일대일의 양자 관계나 상대적으로 단순한 다자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 주위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는 그 속성상 복합의 모습을 띠는 것이 대부분이다. 현대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이러한 종류의 복합네트워크가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

세계정치에서도 이러한 복합네트워킹 전략의 용례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개인, 기업, 조직, 국가와 같은 행위자를 노드라고 본다면 이들 노드들이 서로 무단히 관계 맺기를 하는 복합적인 네트워킹의 과정이 발생한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미국의 복합외교전략(제1장)의 사례도 미국 정부는 노드 행위자가 자신의 주위에 관계 맺기로서의 네트워크를 쳐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2장에서 다룬 미국(또는 한국)의 복합 통상전략과 제3장에서 다룬 한국의 복합외교전략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네트워킹 전략의 사례다. 국가행위자 이외에도 지구화와 정보화시대의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는 다국적기업이나 글로벌 시민단체 등의 활동도 모두 네트워킹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네트워크를 ‘행위자’로 이해하는 시각이다. 네트워크에서의 노드, 또는 노드들이 구성하는 노드의 그룹이나 네트워크 전체를 하나의 ‘행위자’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네트워크는 ‘특정한 경계’를 갖는 노드와 링크의 집합을 의미하며, 네트워크 그 자체가 ‘분석의 단위’이자 ‘행위의 단위’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네트워크를 노드와 노드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그 무엇으로 보는 것보다는 한 차원 위에서 노드와 노드 그리고 그들 사이의 링크 전체를 모아서 하나의 행위자로 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나의 행위자로서 보는 시각은 주로 경제학과 사회학 분야의 조직이론에 기원을 두는 네트워크 조직이론(Network Organization Theory)에서 발견된다. 이들 네트워크 조직이론의 전제는 정보화시대의 경쟁 환경에서 요구되는 유연성, 적응성, 반응속도 등에 부응해 기존의 위계형 조직을 대체하는 새로운 행위자로서 네트워크형 조직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행위자의 형태변환이라는 맥락에서 네트워크의 부상을 이해한다. 사회학자인 마누엘 카스텔(Castells, 1996; 1997; 1998; 2009)의 일련의 저작은 이러한 네트워크 조직이론의 시각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보는 전통에 입각할 때, 복합이란 새롭게 부상하는 행위자들의 ‘구성원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복합네트워크란 기존의 위계형 조직과 같은 단순원리를 따르는 행위자(또는 단순 네트워크형 행위자)가 아니라 그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이라는 면에서 ‘복합원리’를 따르는 새로운 복합네트워크형 행위자의 부상을 의미한다. 여기서 ‘복합원리’란 ‘단순’이 아닌 복잡한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내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복합’의 내용은 무엇일까? 후술하겠지만 최근의 네트워크 이론은 이러한 구성원리로서의 복합의 내용을 일반 이론적으로도 밝히려는 시도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네트워크를 보는 용례는, 네트워크 국가, 네트워크 기업, 네트워크 운동조직 등과 같이 위계형 조직에서 네트워크형 조직으로의 변환을 다루는 사회과학적 논의에서 흔히 발견된다. 특히 최근 지구화와 정보화의 시대를 맞이해 활성화되고 있는 다양한 초국적 네트워크 행위자들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행위자로서 복합네트워크에 대한 논의의 핵심을 이룬다. 이 책의 제5장에서 다룬 사이버 안보 분야의 해커집단이나 테러 네트워크, 제6장에서 다룬 세계금융 분야 초국적 네트워크 행위자들 그리고 개인 또는 집단을 단위로 하여 구성되는 초국적 지식 네트워크나 인식공동체 등을 사례로 떠올려 볼 수 있다.

끝으로, 네트워크를 '구조'로 이해하는 시각이다. 노드들의 네트워크 과정, 즉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패턴화된 관계 맺기의 과정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이는 그 구성요소인 노드들의 행위를 촉진하고 제약하는 일종의 '구조'로서 작동한다. 네트워크의 구도 또는 아키텍처가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행동하는 노드들의 활동조건들이 달라진다. 따라서 네트워크는 노드들의 활동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일단 형성된 네트워크는 노드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나의 구조로 보는 시각은 최근 사회학과 물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많이 알려진 사회-네트워크 이론(Social-Network Theory)에서 발견된다. 특히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은 소시오그램(sociogram)이나 그래프 등을 활용해 특정한 상황에서 각기 상이한 노드들이 맺는 관계구조를 탐구한다. 방법론적으로 정교화된 수학적 모델링이나 시각화 기법을 통해서 연결망과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 연결망의 전반적인 연결도, 호혜성과 상호성의 정도 등을 탐구하는 것이 특징이다(Wellman and Berkowitz, 1988; Gould, 2003; Newman, Barabási and Watts, 2006; 김용학, 2007).

이렇게 행위자를 제약(또는 촉진)하는 구조로서 네트워크를 이해하면, 복잡이란 단순한 방식이 아니라 복합적인 방식으로 형성된 네트워크 구조(또는 질서)의 의미로 통한다. 다시 말해 복합네트워크란 서로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 네트워크 구조(또는 질서)가 복수로 공존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네트워크 구조가 복합적으로 공존한다고 해서 이것이 무질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언급한 복합의 구성원리에 입각해서 나름대로의 질서를 이루고 있는 상태다. 동시에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또는 질서)의 공존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진화해가는 상태다.

이러한 시각에서 네트워크를 보는 용례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존하는 세계질서의 구조(더 완화해서 말하면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를 탐구하는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다룬 사례를 언급하면, 한국의 경제전략에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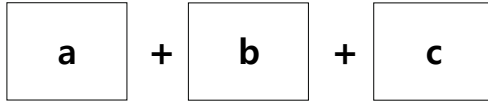
향을 미친 세계경제 거버넌스의 복합질서(제7장),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배태되어 있는 복합적인 네트워크 질서(제8장) 그리고 최근 원자력 거버넌스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근대 질서와 탈근대 질서의 복합질서(제9장)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21세기를 맞는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성격이 전근대 천하질서와 근대의 국제질서 그리고 탈근대적인 성격의 새로운 질서가 복합된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전재성, 2011).

이상에서 살펴본 네트워크 이론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서 보는 복합의 개념을 원용해서 보면(즉 형용어로서 복합을 써서 복합네트워크를 개념화하면), 우리가 21세기 세계정치를 탐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복합네트워크라는 개념은 세 가지 차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과정으로서의 네트워크 개념을 원용해서 보는 복합네트워크(더 정확하게는 복합네트워킹)란 행위자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외교전략을 의미한다. 둘째, 행위자로서의 네트워크 개념을 원용해서 보는 복합네트워크란 새로운 행위자의 성격을 규정하는 구성원리다. 끝으로 구조로서의 네트워크 개념을 원용해서 보는 복합네트워크란 복수의 네트워크 환경이 서로 중첩되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출현을 의미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러한 세 가지 층위의 복합네트워크 개념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제3절 새로운 외교전략의 모색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복합의 사전적 용례는 “두 가지 이상이 또는 두 가지 이상을 하나로 합침”이다. 일반적인 의미로 무엇인가를 섞어서 ‘하나’가 아니라 ‘여럿’을 만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된 복합은 우리의 일상용어에서 조합, 배합, 혼합, 집합 등과 혼용되

그림 11-2 집합으로서 복합



는데, 이 글에서는 이를 통칭해 집합(集合, collection)이라고 칭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해된 복합은, 〈그림 1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물리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섞는 행위 또는 방법과 관련된 개념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집합으로서 복합의 개념을 요리에 비유해 보자. 사실 사람이 하는 요리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다양한 재료와 행위와 방법을 섞는 복합요리다. 예를 들어 복합요리란 한 가지가 아니라 해물, 고기, 야채 등과 같은 다양한 식재료들을 섞어서 만든 요리다. 좀 더 의미를 확장하면, 복합요리란 주방장 혼자만 아니라 보조 요리사, 주방 급사, 웨이터 등과 같은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진다. 또한 복합요리란 한 가지 요리기구나 요리방식이 아닌 숟, 냄비, 프라이팬 등과 같은 다양한 기구들을 활용해, 지지고 볶고 삶는 등의 여러 가지 방식들을 적용해 만들어진 요리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야말로 요리는 다양한 재료와 행위와 방법의 집합체다.

그렇지만 아무리 복합요리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섞어서 만들지는 못한다. 따라서 식재료의 성격이나 요리사의 취향 그리고 주방 여건 등에 따라서 복합요리에도 취사선택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계절에 따라 다른 식재료의 성격에 맞추어 요리의 메뉴가 결정되고 요리사의 솜씨나 요리를 먹는 사람의 취향 그리고 요리가 만들어지는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요리들이 만들어진다. 요컨대 복합요리를 만드는 것은 아무것이나 무턱대고 섞는 것이 아니라 요리의 목적에 맞추어 그에 적합한 조합(또는 집합)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집합으로서 복합을 구현하는 전략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 앞서 제시한 ‘과정’으로서의 네트워크 개념이 도움을 준다. 요리처럼 네트워크도, 다양한 노드들이 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링크를 맺으며 ‘네트워크’를 이루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네트워크란 다양한 구성 요소들(즉 노드들과 링크들)을 집합해 구성하는 것이다. 네트워크의 특징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뭉뚱그려져 융합 또는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들이 자체의 성격을 유지하며 분산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함께 모여서 기능한다는 점에 있다.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된 네트워크는 네트워킹을 추구하는 행위자들의 전략의 산물이다. 앞서 언급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은 행위자들이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해가는 전략의 과정(즉 ANT의 용어로는 ‘번역’)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된 복합으로서 네트워크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집합성^{集合性, collectivity}의 개념이다. 집합성이란 “모듈의 형태로 존재하는 여러 요소들이 모여서 구성”되는 네트워크의 성격을 뜻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네트워크의 개념적 외연을 가장 쉽고도 간결하게 표현한 학자는 마누엘 카스텔이다. 그는 네트워크의 속성을 위계조직에 대비해 세 가지로 요약했다. 우선, 각 구성요소들의 밀접한 상호의존을 특징으로 하는 위계조직의 작동방식과는 달리, 상호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노드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flexible} 작동한다. 둘째, 그 형태와 규모가 일정하게 정형화되어 있는 위계조직의 아키텍처와는 달리, 네트워크에서는 그 형태와 규모의 조절이 상대적으로 용이^{scalable}하다. 끝으로 어느 한 구성요소의 제거가 체계 전체의 작동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위계조직과는 달리, 네트워크에서는 어느 노드와 링크의 한 부분이 잘려 나가더라도 재생가능해서^{survivable} 네트워크의 체계 전체가 붕괴되는 일은 없다(Castells, 2004: 4~6).

이렇게 집합성을 띠는 네트워크의 개념을 비유적으로 이해하면, 네트워크는 아메바나 레고 블록^{Lego bloc} 또는 도마뱀의 꼬리를 연상하게 한다. 실제

로 네트워크의 작동방식은 마치 원생동물인 아메바가 움직이는 것과는 같은 유연한 모습을 띤다. 또한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는 쌓고 허물고 덧붙이고 빼면서 그 모양을 쉽게 바꿀 수 있는 모듈형의 장난감, 레고 블록과도 같다. 게다가 네트워크에서는 어느 일부가 붕괴하더라도 마치 도마뱀의 꼬리처럼 손상된 노드와 링크를 복구하면 그만이다. 요컨대 네트워크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흩어지면서 주위의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가진 집합체다(하영선·김상배 편, 2010: 37~38).

이러한 집합성의 연속선에서 이해한 복합네트워크란 무엇인가? 복합네트워크라는 말에서 ‘집합으로서 복합’이라고 하는 서술어에 강조점을 두면, ‘복합’ 네트워크란 한 가지 종류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런 네트워크 저런 네트워크가 섞여 있는 네트워크 또는 이런 방식 저런 방식이 섞여서 작동하는 네트워크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복합네트워크라는 말에서 ‘과정으로서 네트워크’에 강조점을 두고 보면, 복합 ‘네트워크’란 분산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노드들과 링크들을 엮어서 무언가 유연한 구성체를 만들어가는 더 능동적인 행위(즉 네트워크)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복합네트워크란 다양한 요소들이 네트워크 형태로 얽혀 있는 상태인 동시에 이러한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집합의 전략’을 의미한다.

이러한 복합네트워크의 개념을 기반으로 세계정치의 변환을 이해하면, 이 장의 머리말에서 언급한 복합세계정치의 현상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정치에서는 군사안보나 정치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기술, 정보, 지식, 문화, 커뮤니케이션, 환경, 에너지, 자원, 여성, 인권 등과 같은 여러 분야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문제영역이 복합화되는 만큼 이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의 복합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시 말해 21세기 세계정치에서는 국가행위자 이외에도 다양한 비국가행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요컨대 21세기 세계정치의 특성은 문제영역과 행위자가 모두 얽혀서 집합적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데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세계정치의 변화에 대응하는 행위자들의 전략적 행위도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21세기 세계정치의 [복합행위자들이 벌이는 권력정치의 상호작용도 예전과는 달리 매우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갈등과 협력이 벌어지는 양상을 보면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로 대변되는 다양한 권력자원의 복합적 활용이 발견된다. 이러한 권력자원을 운영하는 방식도 밀고 당김이 동시에 추진되는 스마트파워 smart power의 메커니즘을 따른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21세기 복합세계정치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기존의 오프라인 공간에 겹쳐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을 매개로 한 온라인 공간이 세계정치의 전면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 책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문제영역, 행위자, 권력게임, 활용공간 등이 복합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복합세계정치의 부상에 대응하는 복합외교의 방향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권력자원과 활동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데로 간다. 집합의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복합외교를 수행하는 데에는 특별히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교를 추진하는 주체나 방법과 대상 등과 관련해 단순외교의 발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복합외교의 발상을 갖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집합의 관점에서 이해한 복합외교는 구체적인 사례들의 해법을 실제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외교의 담당자가 체감하고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메타 개념^{meta concept}’의 성격이 강하다.

이 책의 제1장에서 다룬 미국의 21세기 외교전략은 복합세계정치의 환경에 대응하는 복합외교전략의 대표적 사례다. 특히 2000년대 초중반 추진되었던 부시 행정부의 외교전략이 안고 있던 문제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제기한 외교전략은 국가행위자들이 벌이는 전통적인 군사와 경제의 게임을 넘어서는 복합의 발상을 바탕으로 깔고 있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동원한 소프트파워와 스마트외교 그리고 다자외교와 균형력^{p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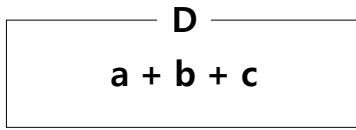
of balancing 등의 개념은 이러한 복합외교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제2장에서 다루고 있는 한미 FTA의 사례도 미국이 변화하는 국제안보구조와 자국의 경제적 지위 변화에 대응하는 일환으로 선택된 복합 통상전략에서 비롯되었다. 복합외교를 향한 미국의 행보는 미국이라는 어느 한 나라의 외교전략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새로운 표준을 제기하는 힘을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제3장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의 복합외교는 21세기 세계정치의 추세를 따라가려는 중견국 복합외교전략의 사례를 보여준다.

지난 냉전시대 이래로 단순외교의 발상과 행태에 갇혀 있던 한국 외교의 문제점을 염두에 두면 이 절에서 살펴본 복합외교로의 발상전환만으로도 향후 외교전략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한국 외교의 실천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복합외교의 개념을 향후 한국 외교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기 위해서는 좀 더 가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단순히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해 외교를 추진하는 차원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들 외교의 각 차원들이 실제로 얽히는 복합의 공식, 즉 복합네트워크의 구성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절 새로운 구성원리의 부상

복합이란 물리적으로 섞이는 것뿐만 아니라 화학적 차원에서 성격 변화가 발생하는 현상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복합은 단순에 대한 반대, 즉 ‘비단순’의 상대화된 개념을 넘어서 그 자체가 고유한 성격과 내용을 갖는 개념이다. <그림 1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합은 집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성격을 지닌 종種, 즉 혼종(混種, hybrid)의 출현을 의미한다. 이는 다양

그림 11-3 혼종으로서 복합



한 요소들이 섞이는 일반적인 의미의 복합이 아니라 특정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섞임만을 복합이라고 부르는, 좁은 의미에서 이해된 개념이다. 앞 절에서 살펴본 집합으로서 복합이 보통명사로서의 복합^{complex}이었다면, 혼종으로서 복합은 일종의 고유명사로서 복합^{Complex}이라고 할 수 있다.

혼종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된 복합 개념을 요리에 비유하자면, 복합요리란 여러 가지 장르의 요리가 섞인 차원을 넘어서는 새로운 요리의 장르(또는 요리법)가 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복합요리는 몇 가지 요리가 섞인 이차적 산물로서의 그 무엇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복합된 요리 그 자체가 독자적인 이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비유컨대,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한 다양한 국적의 요리들이 제공되는 뷔페식당이 아니라, 한식이나 일식 그리고 양식과 어깨를 견주는 ‘퓨전요리’라는 것이 새로운 요리의 장르로 등장한 것을 떠올릴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혼종으로서의 복합요리에는 나름대로의 요리법, 즉 ‘구성원리’라는 것이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혼종의 원리로서 복합을 이해하면, 복합네트워크란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즉 복합원리에 의거해서 구성되고 작동하는 네트워크이다. 다시 말해 복합네트워크는 노드와 노드가 링크로 단순 연결되는 차원(즉 단순 네트워크)을 넘어서, 그렇게 연결된 노드와 링크의 집합이 만들어내는 네트워크의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이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구성원리(즉 혼종으로서 복합의 원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고유한 구성원리란 행위자로서의 네트워크의 구성원리일 수도 있고, 혹은 노드 행위자들

이 구성하는 네트워크 전체구조의 구성원리일 수도 있으며, 더 포괄적으로는 행위자-구조의 구성원리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혼종의 관점에서 이해된 복합네트워크의 부상은 새로운 구성원리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행위자가 부상하거나 또는 새로운 구성원리를 보여주는 네트워크 구조가 창발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Spinuzzi, 2008: 5~6).

그렇다면 복합네트워크의 고유한 구성원리, 즉 복합원리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러한 복합원리란,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산적인 방식으로 집합된 네트워크 내의 구성요소들이 무질서하지 않은 패턴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구성원리를 의미한다. 분산된 형태로 존재하는 하드웨어들을 모아서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떠올리면, 이러한 구성원리의 존재를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기존의 네트워크 이론(더 넓은 의미에서 복잡계 이론)은 복잡한 세상에서 ‘의미 있는 단순성’을 밝혀내는 차원에서 이러한 네트워크의 존재론적 구성원리를 탐구해왔다(Urry, 2003).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복합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탈집중적(또는 분산적) 집합을 전제로 하지만, 그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수직적 내지는 통합적 구성원리를 필요로 한다. 복합네트워크에서 전자의 탈집중의 특성을 보여준 것이 ‘집합성’의 개념이었다면, 후자의 집중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은 ‘중심성(centrality)’의 개념이다.

복합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은 ‘네트워크상의 노드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노드, 즉 허브hub의 존재’를 밝히려는 개념이다. 개념적으로 외연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내부구조도 복합적인 네트워크에서 ‘중심’이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여기서 중심성을 장악한다는 의미는 공간적으로 네트워크의 정중앙에 위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중심성을 이해하면, 무조건 네트워크의 중앙에 위치한다고 해서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심 노드에 어떠한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 노드

들이 중심 노드와 어떠한 관계(즉 링크)를 형성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을 생각해볼 수 있다. 린턴 프리먼(Freeman, 1977; 1979)은 이러한 중심성의 논의를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연결중심성은 어느 특정 노드와 다른 모든 노드들 간에 형성되는 ‘링크의 숫자’와 관련되는데, 이는 어느 노드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다른 노드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다른 노드들과 가장 많은 링크를 갖고 있는 노드가 허브의 권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근접중심성은 어느 노드와 다른 모든 노드들 간에 형성되는 ‘경로의 길이(또는 단계)’를 의미하는데, 이는 어느 노드가 다른 노드들에 정보를 전달하는 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보여준다. 다른 노드들에 가장 짧은 시간에 또는 가장 적은 단계를 거쳐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노드가 허브의 권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매개중심성은 어느 특정 노드를 통해서 전달되는 네트워크상의 ‘최단 경로의 숫자’와 관련되는데, 이는 연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 노드에 의존하는 정도를 보여준다. 노드들의 상호작용이 어느 특정 노드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수록 그 노드는 허브의 권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중심성에 대한 논의는 유연한 개념적 외연을 가지고 있는 복잡네트워크의 개념적 내포가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기존의 네트워크 이론들은 이러한 내적 구조의 내용(즉 구성원리)을 밝히기 다양한 작업들을 펼쳐왔다. 예를 들어 사회학이나 물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성과에 의하면, 네트워크는 불균등한 규모의 노드들로 구성되는 좁은 세상 네트워크 또는 허브형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복잡네트워크의 내부는 균질적인 노드와 링크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허브의 역할을 하는 노드가 있으면 스포크^{spoke}의 역할을 하는 노드가 있고, 강하고 가까운 링크가 있으면 약하고 먼 링크가 있는 척도 무관 네트워크^{scale-free}

network의 구조를 따른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이론에서 말하는 ‘여섯 단계의 분리,’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s,’ ‘약한 고리weak ties,’ ‘착취혈exploit’ 등의 개념은 바로 이러한 네트워크의 성격을 반영하는 개념이다(Burt, 1992; Barabási, 2002; Galloway and Thacker, 2007; 뷰캐넌, 2003; 와츠, 2004).

이상에서 살펴본 구성원리를 따르는 복합네트워크의 가장 쉽고도 대표적인 사례는 다름 아닌 지구적으로 구축된 컴퓨터 통신망인 인터넷이다.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a network of networks’라는 인터넷의 별명이 이러한 특징을 잘 반영한다. 실제로 인터넷은 다양한 물리적 네트워크들이 축차적으로 진화하면서 결합된 집합체다. 다양하고 이질적인 배경의 물리적 네트워크들이지만 일정한 프로토콜과 표준을 준수함으로써 거대한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는 탈집중적으로 퍼져 있는 하드웨어의 요소가 논리적으로 일관된 구성원리를 지닌 소프트웨어의 요소에 의해서 조율되는 혼종의 네트워크다.

이렇게 기술과 표준의 결합체로서 출현한 인터넷은 정보와 지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교류하는 소셜네트워크의 인프라를 제공한다. 이러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층적인 복합네트워크가 영토적 공간을 넘어서 확산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들이 그 사례들이다. 최근 주목받는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의 확산은 이러한 복합네트워크 현상을 강화하고 있다. 넓게 보아 웹2.0이라고 불리는 기술의 진화는 복합네트워크로서 인터넷의 특징을 더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21세기 세계정치에서도 사이버공간에서만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이러한 복합네트워크들이 발견된다(김상배, 2010).

예를 들어 제5장에서 다루고 있는 사이버 안보 분야는 새로운 구성원리를 따르는 복합네트워크의 부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전통적인 안보의 문제와는 달리 사이버 공격과 테러는 국가행위자들 간의 게임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복합네트워크 형태의 행위자들이 벌이는 게임이다. 최근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서 네트워킹에 드는 비용이 급속히 하락함에 따라 복합네트워크의 메커니즘에 의지하는 비국가행위자들이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힘을 발휘하고 있다. 게다가 사이버 테러나 공격은 인간행위자와 컴퓨터라는 매개체가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누가 범인인지를 밝혀내기도 어렵다. 사실 그 배경이 되는 인터넷 자체의 구조적 속성(소위 착취혈의 존재)이 이러한 네트워크 행위자들의 힘이 먹혀 들어가는 발미를 제공한다.

이러한 연속선에서 보면 세계금융패러다임의 변화를 다룬 제6장의 사례도 새로운 구성원리에 입각한 복합네트워크의 부상을 보여준다. 제6장에서 세계금융의 중요한 행위자로 주목한 것은 자산이나 자본규모가 큰 금융기관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부자들과 대출자의 중간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네트워크형의 금융기관이다. 실제로 세계금융위기의 원인은 많은 자산을 보유한 상업은행이 아니라 적은 자산을 가진 투자은행이 제공했다. 이러한 지식의 배경에는 자본의 '양^{stock}'보다는 자금의 '흐름'이 금융안정성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는 복합네트워크 환경의 출현이 있다. 세계금융의 사례 이외에도 지구화와 정보화의 환경을 배경으로 부상한 복합네트워크는 다양한 형태의 초국적 사회운동이나 문화 네트워크 그리고 엘리트 차원에서 구성되는 지식 네트워크 등의 사례에서도 발견된다.

이렇게 새로운 구성원리를 따르는 복합네트워크의 부상은, 앞서 언급한 네트워킹의 전략 또는 '집합의 전략'이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새로운 전략의 발상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고유한 구성원리를 갖는 복합네트워크 구조의 출현에 대응해 행위자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형태를 변환하거나 또는 내적 구조를 개혁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러한 논의는 기존의 위계조직의 형태를 띠었던 국제정치의 행위자가 새로운 복합네트워크 형태의 조직을 닮아간다는 '네트워크 국가'에 대한 논의와 연결된다(하영선·김상배,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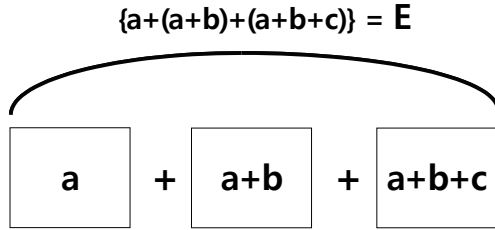
새로운 구성원리를 지니는 국가행위자(즉 네트워크 국가)가 복합세계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는 사례는 제5장에서 다루고 있는 사이버공간으로의 국가의 재진입 그리고 제6장에서 다루고 있는 세계금융 분야의 국가규제 등의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5절 새로운 세계질서의 창발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복합은 물리적 집합이나 화학적 혼종의 의미를 넘어서는다. 복합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우러진 질서, 즉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구도를 뜻한다. 이러한 복합은 <그림 11-4>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일종의 메타^{meta} 개념인데, 중층, 중첩, 공존, 병존^{並存} 등의 의미와도 유사하다. 앞서의 두 절에서 다룬 복합의 개념이 물리학적 또는 화학적 배경을 갖는 개념이라면, 이 절에서 주목하는 복합은 생물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 이렇게 이해된 복합질서는 다양한 생물들이 생태계를 이루어 함께 모여 사는 공존의 복합질서인 동시에 ‘함께 살면서 함께 변한다’는 의미의 공진^{共進}, co-evolution의 복합질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공진의 의미 안에 는 현 상태에 대한 실증적 서술뿐만 아니라 변화의 방향에 대한 규범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다(하영선·조동호 편, 2010).

공존과 공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된 복합의 개념을 요리에 비유하자면, 복합요리는 다양한 재료와 방식으로 만들어진 요리를 패키지로 만들어서 전체 요리의 ‘코스’를 제공하는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 하나하나 요리의 복합을 논하는 차원을 넘어서 여러 가지 요리들이, 그것이 단순요리든 복합요리든 간에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하나의 세트를 만드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만약에 복합요리의 코스라는 것이 있다면, 주 요리로는 ‘퓨전 요리’를 먹더라도 전식으로는 일식도 있고, 중식의 수프도 있고, 반찬으로 김치

그림 11-4 공진으로서 복합



도 있고, 디저트로 케이크와 커피도 있는 식탁 차리기로서의 복합이라고나 할까? 여기에 덧붙여 맛있는 요리, 보기 좋은 요리, 배부른 요리 등과 같이 복합 코스요리의 철학과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복합을 이해하면 복합네트워크란 상이한 유형의 네트워크들이 둘 이상 공존 또는 공진하면서 질서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단순 네트워크와 다양한 형태의 복합네트워크들까지도 포함하는 여러 개의 네트워크가 겹쳐 있는 질서라는 뜻으로 망중망(網重網, a network of networks)의 질서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복합네트워크를 여러 가지 행위자-구조가 공존·공진하는 질서로 볼 경우 관건이 되는 것은 그 질서의 '정체성 identity'이다. 여기서 정체성이란, 집합성과 중심성을 양대 축으로 하는 복합네트워크라는 판의 테두리를 규정하고 그 복합네트워크가 지향하는 목적론이나 존재근거 또는 가치관 등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체성은 복합네트워크 성립의 전제가 되는 프로그램 또는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복합네트워크 질서의 정체성, 즉 망중망 질서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복합네트워크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네트워크 이론의 성과는 주로 네트워크의 유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절에서 주목하는 바와 같이, 복합네트워크의 질서를 그 하위에 공존·공진하는 이질적인 행위자-구조들(즉 네트워크들)의 복합질서로 파악한

그림 11-5 복합네트워크의 유형구분

구분	집중의 작동방식	탈집중의 작동방식
단허브형 아키텍처	<1-영역> 독재 모델	<2-영역> 제국 모델
탈허브형 아키텍처	<3-영역> 인터넷 모델	<4-영역> 장터 모델

다면, 그 구성단위가 되는 다양한 네트워크들의 유형을 개념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네트워크 유형에 대한 논의는 주로 경제학이나 사회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들 논의는 지나치게 단순한 감이 없지 않다. 예를 들어 기존의 네트워크 논의는 통상적으로 수직적 질서로서의 ‘위계’와 수평적 질서로서의 ‘시장’의 중간 지대에 속하는 수직-수평의 복합질서를 모두 통틀어 ‘네트워크’라는 범주로 구분해 이해한다. 그러나 복합네트워크의 특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그 자체의 유형을 세분화시켜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네트워크 유형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가 무엇이나 그리고 그 노드들이 어떠한 성격을 갖느냐, 노드들을 연결하는 링크의 강도와 내용, 상호작용의 양과 빈도 그리고 그 전체적인 구도는 어떠한냐 등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유형론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집중적인가 분산적인가, 수직적인가 수평적인가, 경계가 있는가 없는가, 범위가 제한적인가 아닌가, 개방적인가 폐쇄적인가, 포용적인가 배제적인가, 응집적인가 확장적인가, 일방적인가 쌍방향적인가 등에 따라서 네트워크

의 유형 구분을 하고 있다(Barney, 2004: 26~27). 그런데 이렇게 다소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기존의 연구를 이 장의 논의에 그대로 가져다가 쓰기에는 직접적 유용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허브와 노드 및 그들 간의 관계, 즉 링크가 창출하는 네트워크의 구성원리에 대한 기존 연구를 과감하게 단순화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장에서 주목하는 네트워크의 유형구분의 기준은 〈그림 11-5〉에서 보는 바와 같은 두 가지다. 한편으로 네트워크의 아키텍처가 어떻게 짜였는가를 중심으로 단허브형과 탈허브형(또는 다허브형) 네트워크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보았다. 다른 한편으로 네트워크의 작동방식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집중과 탈집중 네트워크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었다. 이러한 유형 구분은 이론적인 차원에서 본 일종의 ‘인자형(genotype)’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실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표현형(phenotype)’은 이들이 복합된 형태일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취하게 되면 네트워크들이 구성된 원리나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도 상이한 정체성을 갖는 네트워크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인터넷의 경우처럼 탈허브형의 아키텍처와 집중의 작동방식을 지니는 복합네트워크가 있을 수도 있다(〈3-영역〉). 우리가 흔히 복합네트워크라고 하면 이러한 유형의 네트워크를 떠올린다. 그러나 단허브형의 아키텍처와 탈집중의 작동방식을 지니는 복합네트워크도 있을 수 있다(〈2-영역〉). 이는 21세기 제국 모델 또는 소위 성군^{聖君} 모델이다. 이 밖에도 단허브형의 아키텍처와 집중의 작동방식을 지니는 독재 모델 또는 위계 모델(〈1-영역〉)이나 탈허브형 아키텍처와 탈집중의 작동방식을 지니는 장터 모델 또는 민주주의 모델을 상정할 수 있다(〈4-영역〉). 사실 이들 네 가지 유형의 네트워크들은 〈1-영역〉의 독재·위계 모델만 제외하면 모두 각기 복합네트워크의 구성원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이 절에서 논하는 공존·공진의 질서로서 복합네트워크는 이들 개별적인 네트

워크의 성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 네트워크가 둘 이상이 복합되어 형성하는 네트워크들의 질서다.

실제로 가장 포괄적인 차원에서 파악한 21세기 세계질서는 이러한 공존·공진의 질서로서의 복합질서의 모습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21세기 세계질서는 국민국가라는 노드 행위자들이 경쟁하는 단순질서로서의 '아나키 anarchy'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노드와 네트워크 행위자들이 경합하는 복합질서로서의 '네트워크아키networkarchy'로 개념화해볼 수 있다(하영선·김상배, 2010).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국가 중심의 근대 국제질서와 비국가행위자가 구성하는 탈근대 초국적 질서 그리고 이들 양자가 어우러지는 망중망의 질서가 복합되어 있는 질서이다. 또한 전통 질서, 근대 질서, 탈근대 질서가 공존·공진하고 있다는 의미로 복합질서를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복합질서의 역사적 사례는 명청교체기를 겪었던 17~18세기의 조선이나 전통 질서와 근대 질서의 복합을 겪었던 19세기 조선에서도 찾을 수 있다(하영선, 2011).

이 책의 사례 중에서 제7장의 세계경제의 거버넌스에서 나타나는 복합네트워크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변모를 보여준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세계경제 분야에서는 행위자와 문제영역의 다양성과 연계성이 급증해 거버넌스가 복합네트워크의 형태로 이뤄지게 되었다. 제7장은 국가 간 양자협력 이외에 공식 국제기구, 비공식 정부협의체 및 초국가 네트워크 등이 구성하는 복합네트워크들이 서로 공존·공진하면서 추진되는 거버넌스의 양식을 잘 보여주었다. 동아시아 차원에서도 이러한 복수의 네트워크 질서들이 공존하면서 공진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제8장은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작동하는 질서의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을 탐구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공식·비공식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생산, 무역, 자유무역협정 분야의 복합네트워크화에 주목했다. 제8장의 논의에 의하면, 동아시아에서 진행되는 네트워크화 현상은 현재 생산과 무역을 고리로 전개되는 '상향 네

트위크화'와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하향 네트워크화'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복합적이다.

이 책의 제9장에서 다루고 있는 원자력 거버넌스의 세계질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근대 군사질서와 기업이나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탈근대 질서가 복합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냉전시대의 핵무기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의 핵심주제였다. 그러나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붕괴사고 이후 군사안보를 넘어서 에너지와 관련된 경제안보의 성격을 띠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 문화, 지식 등이 관련되는 탈근대 복합안보의 문제로 떠올랐다. 원자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양식도 친핵이나 비핵 또는 반핵이나를 놓고 벌이는 글로벌 복합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논란의 기저에는 21세기 세계정치의 새로운 규범과 관련된 문제의식이 깔려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핵과 원자력의 문제에서 단초를 보인 규범론은 제10장에서 다루고 있는 복합규범론의 논의로 연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제10장에서 제기하는 복합규범론은 향후 복합세계정치연구가 지향해야 할 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살펴본 새로운 외교전략에 대한 논의가 전략 개념으로서의 복합론이라면, 새로운 구성원리에 대한 논의는 분석 개념으로서의 복합론이다. 이 연속선상에서 새로운 세계질서의 창발에 대한 논의에 잊지 말고 포함시켜야 할 것이 바로 규범이론으로서의 복합론임이 분명하다. 특히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입장에서 복합전략을 추구하는 경우 그 기저에 깔린 규범적 기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제10장이 지적하고 있듯이, 한국과 같은 중견국은 강대국 간 경쟁의 논리를 우회해 동아시아인 전체의 복지를 상향식으로 도모할 수 있는 규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한국은 이를 최대한 활용해 보편적 가치를 염두에 둔 외교전략 그리고 남북한 통일전략과 동아시아 전략을 추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제6절 맺음말

이 글은 새로운 외교전략의 부상, 새로운 구성원리의 출현, 새로운 세계 질서의 창발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복합세계정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펼쳤다. 특히 이 장은 복합 개념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이 세계정치의 변환에 어떠한 의미를 던지는지를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복합의 내용을 좀 더 분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 글이 인용한 것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네트워크 이론이었다. 복합의 개념에다가 네트워크의 개념을 더해서 살펴본 이유는,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행위자들의 복합적인 행동(즉 네트워크의 과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구조 그리고 더 나아가 행위자와 구조가 상호 구성되는 원리를 복합적으로 잡아내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이 글이 복합네트워크와 복합세계정치를 이해하는 논의의 플랫폼으로서 마련한 것은 집합성과 중심성 그리고 정체성의 세 가지로 구성되는 복합성의 개념이었다.

복합네트워크란 크게 두 가지의 대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 하나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규모 조절이 가능하며 재생 가능한 외적 경계를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불균등하고 비대칭적인 허브가 존재하는 내적 구조를 가진 네트워크라는 점이다. 전자기수평적 내지는 분산적 구성원리에 기반을 두는 네트워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수직적 내지는 통합적 구성원리에 기반을 두는 네트워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복합네트워크에서 전자의 탈집중의 특성을 보여준 것이 집합성의 개념, 즉 ‘모듈의 형태로 존재하는 여러 요소들이 모여서 구성되는 성격’이었다면, 후자의 집중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은 중심성의 개념, 즉 ‘네트워크상의 노드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노드(즉 허브)가 있다는 성격’이다. 이러한 집합성과 중심성은 복합네트워크 개념의 실질적 내용을 채우는 양대 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림 11-6 네트워크 이론으로 보는 복합성의 구성

$$\text{복합성 Complexity } k = \frac{\text{집합성 } f(\text{collectivity}) + \text{중심성 } g(\text{centrality})}{\text{정체성 } h(\text{identity})}$$

복합네트워크의 세 번째 특징인 정체성은 이러한 집합성과 중심성의 개념을 포괄하면서 복합네트워크의 전반적인 성격, 즉 경계와 목적 더 나아가 가치와 규범까지도 규정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정체성은 집합성이나 중심성과 동일한 층위에서 이해되는 개념은 아니다. 오히려 정체성은 집합성과 중심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복합되면서 구성되는 둘 이상의 상이한 복합네트워크들이 공존·공진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메타 개념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네트워크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복합의 원리’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네트워크 이론으로 보는 복합성(즉 복합네트워크의 특성)은, <그림 11-6>에서 묘사된 바와 같이, 한편으로는 집합성과 중심성의 개념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체성의 개념을 기반으로 해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복합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복합세계정치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의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복합세계정치론은 복합외교로 대변되는 새로운 ‘집합의 전략’을 탐구해야 한다. 21세기 복합세계정치의 부상에 대응하는 복합외교의 방향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권력자원과 활동공간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복합세계정치와 복합외교의 연구는 21세기 세계정치에서 ‘집합성’이 지니는 의미를 제대로 밝혀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집합의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복합외교의

전략을 수행하는 데에는 정해진 공식이 미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외교를 추진하는 주체나 방법 및 대상 등과 관련해 기존의 단순외교의 발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복합의 발상을 갖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성격이나 전략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탐구도 게을리 할 수 없다.

둘째, 복합세계정치론은 새로운 구성원리를 담고 있는 행위자와 구조의 출현을 탐구해야 한다. 최근 사이버공간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의 세계정치에서도 새로운 구성원리를 따르는 복합네트워크 행위자들이 부상하고 있다. 이들의 부상이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국제정치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면서 21세기 세계정치의 장에서 ‘중심성’의 역할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안보의 문제와는 달리 사이버 공격과 테러는 체계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네트워크 형태의 행위자들이 두드러진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세계금융위기 이후 주목받는 세계금융의 주체들은 복합네트워크의 구성원리를 따르고 이를 잘 활용하는 새로운 행위자들이다. 이외에도 기존의 단순국제정치의 시각에서는 크게 주목되지 않았던, 다양한 형태의 초국적 사회운동이나 문화 네트워크 그리고 엘리트 차원에서 구성되는 정책지식 네트워크 등과 같은 행위자들의 역할을 탐구해야 한다.

끝으로, 복합세계정치론은 여러 가지 상이한 구성원리들이 공존·공진하고 있는 21세기 세계질서의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의 탐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1세기 세계질서는 더 이상 기존의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파악하는 바와 같이, 국민국가라는 노드 행위자들이 경쟁하는 단순질서로서의 ‘아나키^{anarchy}’로 개념화할 수 없다. 21세기 세계질서는 다양한 형태의 노드와 네트워크 행위자들이 경합하는 복합질서로 개념화되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21세기 세계질서는 국가 중심의 근대 국제질서와 비국가행위자가 구성하는 탈근대 초국적 질서 그리고 이들 양자가 어우러지

는 망중망의 질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새로운 차원의 정체성을 갖는 복합네트워크 질서 또는 망중망 질서의 탐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단순국제정치론이 갖고 있던 인식론과 방법론 그리고 더 나아가 실천론과 규범론까지도 넘어설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복합세계정치론의 세 가지 과제는 여태까지 국내에서 진행되어 온 복합세계정치연구의 궤적과 향후 방향을 가늠하게 한다. 복합세계정치론은 단순의 발상을 넘어서 복합의 발상에 기반을 둔 실천전략을 탐구하던 초기 단계에서, 복합세계정치와 복합외교의 내용(즉 구성원리)을 분석이론의 관점에서 탐구하는 오늘날의 작업을 거쳐서, 복합세계정치의 미래를 향한 공존과 공진의 비전과 질서를 탐구하는 복합규범론의 단계에 발을 내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향후 복합세계정치의 연구과제는 이 글에서 시도한 개념적·이론적 연구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는 작업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좀 더 많은 경험적인 사례연구를 보강하는 데 있다. 궁극적으로 복합세계정치론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21세기 세계정치 현실과 부단히 대화하는 이론적 노력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참고문헌

- 김상배. 2010. 『정보혁명과 권력변환: 네트워크 정치학의 시각』. 파주: 한울.
김상배 엮음. 2011. 『거미줄 치기와 벌집 짓기: 네트워크이론으로 보는 세계정치의 변환』. 파주: 한울.
김용학. 2007. 『사회 연결망 이론(개정판)』. 파주: 박영사.
뷰캐넌, 마크. 2003. 『넥서스: 여섯 개의 고리로 읽는 세상』. 서울: 세종연구원.
와츠, 던컨. 2004. 『Small World: 여섯 다리만 건너면 누구와도 연결된다』. 서울: 세종연구원.
전재성. 2011.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 서울: EAI.
하영선. 2011. 『역사 속의 젊은 그들: 18세기 북학파에서 21세기 복합파까지』. 서울: 을유문화사.

- 하영선 엮음. 1993. 『탈근대지구정치학』. 과주: 나남.
- 하영선·김상배 엮음. 2006.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서울: 을유문화사.
- _____. 2010. 『네트워크 세계정치: 은유에서 분석으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하영선·남궁근 엮음. 2012. 『변환의 세계정치』(제2판). 서울: 을유문화사.
- 하영선·조동호 엮음. 2010. 『북한 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홍성욱 엮음. 2010. 『인간·사물·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서울: 이음.

- Barabási, Albert-László. 2002. *Linked: The New Science of Networks*. Cambridge, MA: Perseus Publishing.
- Barney, Darin. 2004. *The Network Society*. Cambridge and Malden: Polity.
- Burt, Ronald S. 1992.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llon, Michel. 1986. "Some Elements of a Sociology of Translation: Domestication of the Scallops and the Fishermen of St. Brieuc Bay." John Law(ed.), *Power, Action and Belief: A New Sociology of Knowledg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Castells, Manuel. 1996.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2nd edition. Oxford: Blackwell.
- _____. 1997. *The Power of Identity*. 2nd edition. Oxford: Blackwell.
- _____. 1998. *End of Millennium*. 2nd edition. Oxford: Blackwell.
- _____. 2004. "Informationalism, Networks, and the Network Society: A Theoretical Blueprint." Manuel Castells(ed.), *The Network Socie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Cheltenham, UK: Edward Elgar.
- _____. 2009. *Communication Power*.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reeman, Linton C. 1977. "A Set of Measure of Centrality based on Betweenness." *Sociometry*, 40.
- _____. 1979.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 1.
- Galloway, Alexander R. and Eugene Thacker. 2007. *The Exploit: A Theory of Networks*. Minneapolis and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Gould, Roger V. 2003. "Uses of Network Tools in Comparative Historical Research." James Mahoney and Dietrich Rueshemeyer(eds.),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in Social Science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man, Graham. 2009. *Prince of Networks: Bruno Latour and Metaphysics*. Melbourne: re.press.
- Latour, Bruno. 1987. *Science in Action: How to Follow Scientists and Engineers through Society*.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 _____. 1993. *We Have Never Been Moder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 Press,
- _____. 2005. *Reassess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 Theory*.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aw, John, and J. Hassard(eds.). 1999. *Actor Network Theory and After*. Oxford: Blackwell.
- Newman, Mark, Albert-László Barabási, and Duncan J. Watts(eds.). 2006.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Networks*.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pinuzzi, Clay. 2008. *Network: Theorizing Knowledge Work in Telecommunic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ompson, Grahame F. 2003. *Between Hierarchies and Markets: The Logic and Limits of Networks Forms of Organization*.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Urry, John. 2003. *Global Complexity*. Cambridge: Polity.
- Wallerstein, Immanuel. 1980. *The Modern World-System I: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s of the European World-Economy in the Sixteenth Century*. Academic Press.
- Wellman, Barry, and S. D. Berkowitz, 1988. *Social Structures: A Network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